

# 동물복지법 발효후 외국산 케이지 A/S대란 올수도...

◇ 취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1980년대 산란 농가의 케이지는 대부분 A형이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에는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자동화·대형화의 조류를 타고 외국산 직립식 케이지가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직립식 케이지 설치로 평당 사육수수 증가가 가능했지만 자동화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질병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도 있었다. 10년 이상 직립식 케이지에 적응하다 보니 노하우가 축적되어 대형 농장 위주로 직립식 케이지 설치가 증가하였고, 관리면에서도 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외국산 케이지를 설치하는 농가도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도 중단된 상태여서 외국산 케이지 보급이 소강상태를 보이다 최근에 와서 다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보급된 케이지 관리실태와 A/S 현황을 알아보았다.

## 1. 농가 보급 케이지 현황

본 기자가 국내에 설치된 산란케이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산과 외국산 모두 30개 회사 제품이 보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산 케이지의 경우 대부분 A형 케이지가 많고, 직립식 케이지는 한 업체가 공급에 참여하였다.

국산 케이지 시장은 1990년부터 외국산 케

이지 수입으로 시장 확장에 타격을 받게 되었

표1. 국내 보급 케이지 업체

국산 (15개)	삼양케이지, 보일케이지, 제일양계기구, 고창케이지, 팜코리아, 한국케이지, 형제케이지, 해양시스템, 대한특수산업, 매일케이지, 현대케이지, 대구케이지, 태영케이지, 충청케이지, 대보케이지
외국산 (15개)	발리, 빅터치만, 헬만케이지, 주카미, 쌀멧케이지, 스파크, 멜러, 테크노, 쌀택, 아루아스, 파코, 오마츠, 파머오토메틱, 요시다, 스텡

는데 IMF를 맞으면서 국산 케이지 보급업체가 부도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현재 5개 업체만이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정도이다.

국내에는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케이지가 보급되어 있다. 이중 독일 케이지 비중이 가장 크며, 최근에도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케이지 설치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국산과 외국산의 수량 비율을 본다면 국산 70%, 외국산 30%를 점유하고 있지만 사육수수를 감안하면 50 :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된다.

케이지 설치에 있어서 국산 케이지 A형 타입은 3단 3열, 4단 3열, 4단 2열을 가장 많이 설치하였고, 외국산 케이지는 4단 4열, 6단 4열, 8단 4열, 5단 5열이 가장 많은 상태인데 계사 형태에 따라 약간 변형되어 설치되었다.

## 2. A형보다 직립식 선호

### 1) A형케이지

외국산 케이지가 보급되기전에는 대부분의 산란농가에 A형 케이지가 설치되었다. A형 케이지의 장점은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사양가가 직접 닭의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용접 기술 미숙과 케이지 바닥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양가들이 지적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형 케이지는 관리시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고, 질병발생이 잦은 농가는 3단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4단 케이지는 4



단에 위치한 닭의 계분이 하단 케이지로 떨어져 가금티푸스 발생 확률이 높다는 설도 있다.

### 2) 직립식 케이지

1990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직립식 케이지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위생적이고, 평당 사육수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로 대형 농장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 설치 비용이 7,000~11,000원으로 국산 케이지 보다 두 배 가까운 비용이 들고 에그엘레베이터와 같이 정교한 부품이 고장날 경우 국내에서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 본사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직립식 케이지는 8단 높이로 설치하는데 너무 높은 경우 환기관리에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5열보다는 4열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 재래식 계사의 A형 케이지에서 직립식 케이지로 교체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 과중한 인건비 부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자금이 여유가 있는 일본사람들은 대개 10만수를 2동으로 관리하고 싶어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육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있다. 직립식 케이지를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적은 면적에 많은 계군을 사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직립식을 선호하는 또다른 이유는 자동화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수련된 전문 인력으로 많은 계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품제조 기술력이 뛰어나 생산성 감소 요인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계란 밀받침대가 탄력성이 뛰어나 계란 파손율이 적다. 탄력성 있는 케이지 밀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A형 케이지의 경우 아직 이런 기술을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설치하면 내용년수가 20년이상 A형케이지 보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3. A/S와 PL법

사후관리 서비스 기간은 국산과 외국산 모두 6개월에서 1년이다. 서비스 보장기간이 끝난 케이지는 농장 자체적으로 수리 보수를 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국내에 설치된 케이지 사후관리 서비스의 어려운 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시설업체 부도와 대리점 역할 상실

농장에 설치된 케이지 종류를 보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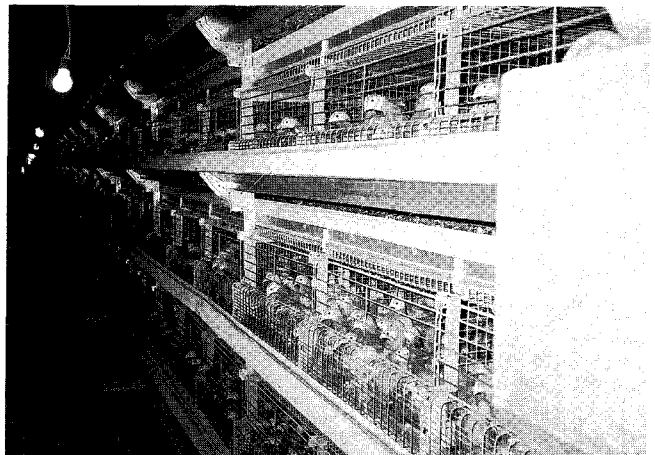
품과 형태에 있어 2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국내 케이지 업체들이 진출입이 너무 잦은 편이고, 그나마 IMF 이후 국내 업체들 부도로 케이지 중에는 A/S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IMF 이후 정부에서 시설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비싼 외국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장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 운영이 중단되거나 사업영역이 대폭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H사, B사, HE사가 활발하게 국내에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 2) 설계 도면이 없다

우리나라 계사의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신축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설면적이 일정치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계사에 케이지를 변형하여 설치하다 보니 설계도면이 없고, 규격품이 생산될 수 없었다. 이렇게 설치된 몇몇 국산 케이지들이 몇 년 후 문제 발생시 수리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시설업체들의 고민은 사후관리서비스 보장보다도 PL법의 적용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농장에서 PL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한번 이 법에 의하여 변상을 해 주다 보면 농가들의 피해소송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시설업체들의 보험 가입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 4. 농가들이 지적하는 사후관리 문제점

- 국산 : - 규격화되지 않은 수리부품  
 - 부품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처리함.  
 - A/S 비용중 출장비 과다함.  
 - 국산 밀판 처짐으로 인한 계란 정체와, 품질저하 및 파란발생 증가  
 - 전기 장치는 A/S 대상에서 제외  
 - 국내산 문짝 용접 부실  
 - 계란 받침대가 부실하다  
 - A/S에 성의가 없다.
- 외국산 : - 계분을 말리는 에어다트의 경우 청소하기 어려움이 있다.  
 - 부품값이 비싸고 A/S 신청후 처리기간이 일정치 않다.  
 - 외국산 부품 조달이 안된다.  
 - 전기 장치 A/S 대상에서 제외  
 - 전산시스템 관리 미숙  
 - A/S에 성의가 없다.

#### 5.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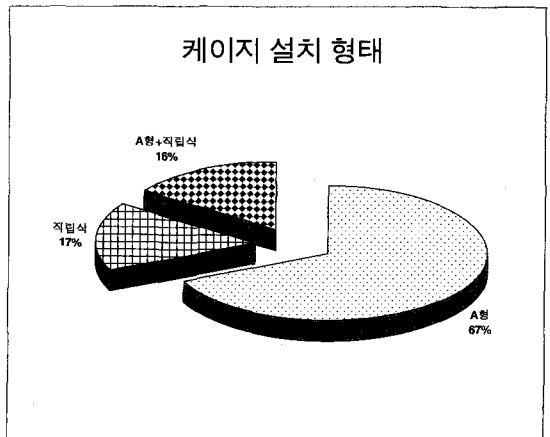
케이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 채란농가중 사육규모가 1만수인 10농가, 2-3만수인 45농가, 4-5만수인 30농가, 6만수 이상인 12개 농가 등 총 97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산란계사에 사용하는 케이지 형태중 직립식을 설치한 농가는 16.5%, A형 케이지를 설치한 농가는 68%, 직립식과 A형을 모두 설치한 농가는 15.5%로 조사되었다.

A형 케이지와 직립식 케이지를 설치한 농가를 살펴본 결과 1~5만수 규모 농가들의 분포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중 1만수규모 농가들은 90%이상 A형 케이지를 설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만수규모 이상 농가들은 직립식 케이지가 50%, 직립식과 A형 모두 설치한 경우가 33.3%이고 A형 케이지만을 설치한 농가는 16.7%에 나타나 6만수 규모 이상 농가들은 A형 케이지를 설치보다도 직립식 케이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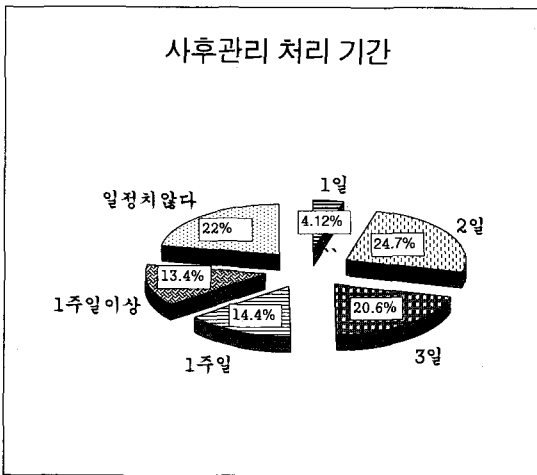
2) 케이지 관리시 자주 고장나는 부분에 대하여 급수기는 6.6%, 급이기 31.1%, 집란벨트 10.3%, 계분벨트 29.6%, 계란엘레베이

트 11.8%, 전동기 3.7%, 기타 6.6%을 나타내어 케이지 관리시 급이기와 계분벨트가 가장 고장이 많다고 답변하였다.

직립식 케이지를 설치한 농가 중 자주 수리하는 시설은 급이기와 전산, 전기시설, 계란벨트, 계란엘레베이터이고, A형 케이지를 설치한 농가는 급이기와 계분벨트가 고장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3) 사후관리 처리 기간을 묻는 질문에 1일은 4.12%, 2일은 24.7%, 3일 20.6%, 1주일 14.4%, 1주일이상 13.4%, 일정치 않다가 22%로 집계되었다. A/S 처리 기간은 고장난 부품이 무엇이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 부품이 있을 경우 2일 안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내 대리점에 부품이 없을 경우 외국에서 부품을 우편으로 구입해야 함으로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는데 불만이 더 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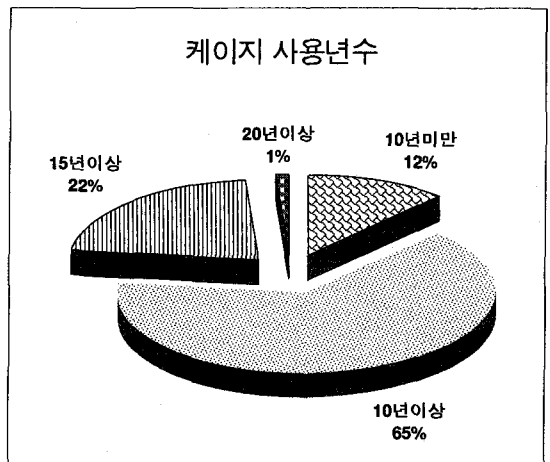


4) 농장에서 사용하는 산란케이지 제품 종류는 몇 가지인가에 대하여 1종은 40.2%,

2종은 35%, 3종은 23.7%, 4종은 0%, 5종은 1%로 농장에서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지는 2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약 6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농가들은 사육 규모를 늘리 때마다 기존 제품과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하거나, A형에서 직립식으로 교체한 경우로 보아지며, 1종만 보유하고 농가들은 케이지 관리와 A/S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농장에 설치한 케이지와 같은 회사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같은 회사 케이지를 사용할 경우 케이지 설치후 A/S 기간이 경과할 경우라도 다른 케이지가 A/S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산란 케이지의 사용년수는 10년 미만인 12.3%, 10년 이상이 64.9%, 15년이상 21.6%, 20년 이상 1%이라고 답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 87.5%가 케이지를 10년이상 사용하고 있다. 케이지 사용년수가 10년 미만인 12.3% 농가중에는 6만수 이상의 대형 농장과 직립식 케이지를 설치한 농가가 절대 우위를 보였다.



## 6. 향후 국내 케이지 시장 변화

유럽은 동물복지법 발효에 의해 산란케이지는 2006년까지 1수당 거주 면적을 넓히고, 횃대와 알 낳는 장소까지 따로 마련을 하여야 한다. 또한 2010년부터는 방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동물복지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케이지 설치의 전면 금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어 올해 유럽은 동물 복지법이 발효 확산 되기전에 기존 케이지를 설치하려는 농가들 때문에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유럽과 같은 이유가 아니지만 케이지 가격이 저렴하여 대형 농장들이 올해 케이지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HE사 케이지 설치 현황을 보면 2001년까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 9건(479천수)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직립식 케이지 보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A형 케이지 시장은 앞으로 계속 축소될 방침이라는 것이다. A형 케이지 설치 업체인 S업체 사장에 의하면 A형 케이지는 신축하는 농장이 거의 없으며 다만 수리 교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중고 케이지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A형 케이지 시장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외국산 케이지 업체들은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동물복지법 제정 움직임은 없지

만 소비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은 닭의 계란을 먹고 싶다고 요구한다면 생산자와 정부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유럽과 같은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7. 맺은말

국내 케이지는 시장은 A형에서 직립식으로 변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A형 케이지를 생산하고 있는 몇 개 업체가 기존의 국산 케이지에 대한 모든 A/S를 담당해야할 실정이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국산 케이지의 경우 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점차 규격화된 외국산 케이지의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설치비용이 증가하여 일부 농가는 중고 케이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농가는 자체 부품을 만들어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산의 경우 동물복지법 발효가 케이지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데 기존 동물복지법이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2010년 이후 외국산의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케이지의 A/S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내 산란농장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계**

